

보험가입때 ‘신용도 반영’ 논란

삼성생명에게 이어 다른 생명보험사도 보험 가입 심사 때 개인 신용도를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신용도가 나쁜 사람은 보험 가입에 큰 제한을 받게 됐다.

생보사들은 개인 신용도와 보험금 지급 사고의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신용도 반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단순히 신용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미래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차별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들 “역선택 방지, 선량한 가입자 보호 위해 필요”= 생보사들은 개인 신용도가 낮을 수록 보험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고 있다.

보험금을 내리고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의 개연성이 높고 보험 사기에 휘말려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다른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 신용등급이 낮을 수록 보험료 납부 능력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중도 해약할 경우 환급액이 미미해 가입자는 물론 보험회사도 손실을 입는다는 점

삼성생명 도입 이후 전 업계 확산

서민들 “보험가입까지 차별” 반발

도 주고 있다.

삼성생명이 지난 8월 개인 신용도를 보험 가입 심사에 반영하기에 앞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낮은 가입자일수록 보험금의 조기 지급률이 높고 지급 금액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A사의 경우 신용등급 8등급 이하인 고객의 가입 1년 이내 보험금 지급률이 17%로 일반 고객 11.4%를 웃돌았고 B사는 보험 사기로 적발됐거나 관련된 가입자의 51%가 신용등급 8등급 이하로 분석됐다.

또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의 사망 사고나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하 등급인 10등급과 9등급은 금융기관 대출 연체 등이 심하게 신용 거래

가 어려운 사람이고 8등급은 단기 연체가 많아 부실화 가능성이 큰 사람이다.

계다가 이차손(예정 이윤과 자산운용 수익률의 차이)과 위험률차(보험사고 발생 위험률과 실제 발생률) 문제가 생보사들의 실적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보험 가입 심사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지금은 가입자의 연령과 과거 질환, 직업 등을 감안해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신용도 반영 논란 확산**= 보험 가입 때 개인 신용도 반영이 생보업계 전 체로 확산됨에 따라 논란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의 공익적 성격을 중시하는 사회 정서 때문이다.

경기 둔화와 일자리 감소 등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신용도가 나쁘다는 이유로 미래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가입마저 제한을 둘 경우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보험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신체를 담보로 하는 상품이고 일시적으로 신용 불량이 빠질 수 있는데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신용등급을 갖고 일괄적으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개인 신용도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정서 때문에 최종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국내 최대 보험사인 삼성생명의 도입 이후 전 업계로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車보험료 인상

내년 초 5% 안팎

내년 2~3월께 자동차 보험료가 5% 안팎에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손해보험사들은 내년 2월부터 5% 이상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부화재와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도 자동차보험료 효율조정을 검토하고 있어 늦어도 내년 3월이면 대부분 5% 안팎에서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손보업계는 업체별 인상 여부나 조정폭·시기 등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자동차 손해율이 크게 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권익 강화

앞으로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근거가 되는 ‘가입 계약서’ 교부가 제도화된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인 외에 대리인도 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용 약관에 명확히 반영되는 등 이용자 이익 강화를 위해 이용약관도 변경된다.

정보통신부는 27일 주요 초고속인터넷 업체 사장과 소비자단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과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해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주요 제도 개선 방향은 가입계약서 교부의 제도화, 이용자 이익 강화를 위한 이용약관 개선, 통신위원회 사후 시장 관리 등으로 요약된다.

현재 대리점의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할 경우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가입자의 권리의무 사항을 기재한 이용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통통을 확인하는 절차만 거쳐고 있다.

가입자들은 속도 등 서비스 제공에 불만이 있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업체와 분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판매자가 제공기로 한 혜택(경품 등) ▲인터넷 속도 등 품질정보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기재한 가입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했다.

본인 이외에 대리인도 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확하게 반영하고, 해지희망일 3일 전에 해지를 신청할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던 조항이 삭제된다.

또한 요금, 위약금 등 가입자 주요 권리의무 사항을 기재한 가입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했다.

/연합뉴스



서울역 앞 ‘대우빌딩’ → ‘금호아시아나 빌딩’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인수합병(M&A) 시장의 대어인 대우건설을 인수함에 따라 서울역 앞 대우빌딩도 금호아시아나빌딩으로 바뀌게 된다. 금호아시아나 빌딩 출범을 하루 앞둔 27일 기존의 ‘대우’자리에 ‘금호아시아나’ 로고와 심벌이 초록색 천에 가려져 모습을 드러내기 직전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인수합병(M&A) 시장의 대어인 대우건설을 인수함에 따라 서울역 앞 대우빌딩도 금호아시아나빌딩으로 바뀌게 된다. 금호아시아나 빌딩 출범을 하루 앞둔 27일 기존의 ‘대우’자리에 ‘금호아시아나’ 로고와 심벌이 초록색 천에 가려져 모습을 드러내기 직전이다.

/연합뉴스

가장 비싼 아파트 88평 52억5,000만원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 숫자로 본 부동산 시장

판교 청약 경쟁 2,073대 1

올해 부동산 시장은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크게 올랐고, 급기야 ‘만값 아파트’라 불리는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과 분양가 상한제까지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52억5천만원**=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현재 시세 조사 대상 아파트 가운데 품값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88평형으로 호가가 52억5천만원에 달했다. 이 아파트는 방 4개에 욕실이 3개 딸린 구조로 총 3가구 밖에 없어 거래가 거의 없다. 하지만 실제 최고가 아파트는 삼성동 아이파크 펜트하우스 104평형이 될 전망이다. 이 평수는 2가구 뿐인데 한 번도 매물이 나온 적이 없어 시세를 가늠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위를 차지하지 못했다.

▷**26만4천가구**= 올 한해 분양된 아파트는 총 26만4천 88가구에 2004, 2005년의 30여만가구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만6천619가구에 최고를 차지했고, 광주 2만6천500가구, 대구 2만932가구, 경남 1만9천842가구, 경북 1만9천177가구, 서울 1만8천782가구가 등이었다.

▷**6천233만원**= 평당 매매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도 역시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로 73평형이 평당 6천233만원에 기록해 1위에 올랐다. 삼성동 아이파크는 한강 조망권과 강남권 대형평형 아파트의 희소성 때문에 2004년 입주후 줄곧 최고가를 고수하고 있다.

▷**3천250만원**= 올해 최고 분양가 아파트는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힐스테이트 92평형(펄트하우스)으로 평당 3천250만원에 달했다.

▷**2천73대 1**= 분양 아파트중 최고 경쟁률은 판교 신도시 1차 동시분양에 나왔던 삼성 신미주 33A평형으로 75가구 분양에 15만5천509명이 신청해 2천73.5대 1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한성일렉트	공장자동제어 PLC HMI 서보 도전설계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2400~2600	12/30	062-972-9029
☞디지탈정보통신	유아/어린이 영어방송 '키즈톡톡' 부서별 직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30	062-972-6568
열지전자삼광주서비스센터	LG 서비스센터 인내데스크 직원 모집(남/남주)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2/30	062-512-6214
☞기영미디어스	전략전자시스템의 DSP 프로그램개발	대졸/경력2년	2400~2600	12/30	062-226-9445
okvr(오케이비이알)	웹 디자이너 정규직 모집 경력자우대	고졸/경력3년	1800~2000	12/30	062-350-0071
☞한진기공	2007 정규직 기계설계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3000~3200	12/31	062-953-1642
☞비로로	인바운드 상담원 채용공고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2/31	010-4444-5484
☞엔투스닷컴	방고 긍정적인 텔레마케터를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31	062-514-2818
윤선생영어교실	[영어교육영문학과]상담/관리 선생님 채용공고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12/31	062-526-0565
☞기성	납품/배송/출하관리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2/31	062-942-2636
☞나경인터내셔널	무동파크호텔 프린트(여/전)기직(신입)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31	062-226-0011
☞건은	광주광역시 특수 경비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2/31	02-780-0558
그린텔	KTF동광주/순천멤버스플라자 고객 객장 상담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12/31	042-223-4900
☞남일동	삼성전자제품 RT(렌탈)/T.사원모집(서울/광주/전남)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2/31	062-236-2804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직원들 사이 유기적 관계 중요”

고객 만족도 평가 1위 수상

정만위 한전 전남본부장

“내부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면, 외부 고객들도 불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정부의 공기업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한전 전남사업본부가 한전 9개 사업본부 중 1위를 차지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한 한전 전남사업본부 정만위(56) 본부장은 27일 광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직원들의 역할에 공로를 돌렸다.

정 본부장은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원들 사이의 유기적 관계가 중요하다”며 “협력업체와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고 1위 비결(?)을 설명했다. 또 “업체 관계자와도 자주 만나 평소 고민거리를 털어놓고 곧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 힘들었던 일도 많았다. 그중 가장 힘들었던 때는 지난 8월 신안 앞바다에서 크레인 운반 배가 섬 사이를 연결하는 전깃줄을 끊었을 때였다. 철쭉같은 밤, 당시 108명 전 직원이 동원돼 대형 선박에 비상발전기 16대를 싣고 비상복구에 나선 일은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고 회고한다.

“하루하고도 2시간43분 만에 복구를 끝내고 마을에 전기를 다시 보냈을 때 그 소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정 본부장은 “이 사건이 한 번으로 긴급 사고에 빠르게 대응하는 방법을 배운 좋은 계기가 됐다”면서 “내년에도 지역에 원활한 전기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고객 만족 서비스를 위해 업체 관계자들과 자주 만나 애로를 듣는 등 현장경영을 중시하겠다”고 밝혔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다.

광주 출신인 정 본부장은 지난 76년 한전에서 입사, 본사 민원관리 총괄실 부장(3직급), 군산지점장, 국방대학교 정책과정(1직급) 등을 거친 뒤 지난 1월부터 전남본부장을 맡고 있다.

/이승배기자 tsb54@kwangju.co.kr

삼성전자 1Gb 모바일 D램 개발

세계 최초, 모바일 D램서 기가급 D램 시대 주도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1Gb 모바일 D램을 개발해 PC D램에 이어 모바일 D램에서도 기가급 D램 시대를 주도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27일 세계 최초로 80나노 기술을 적용한 1Gb 모바일 DDR D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04년 5월 256Mb, 2005년 1월 512Mb 모바일 D램을 개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80나노 1Gb 모바일 D램을 개발해 낸 것이다. 이 제품은 512Mb D램 2개를 쌓은 기존 제품에 비해 두께가 얇고 전력소모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80나노 1Gb 모바일 D램은 온도에 따라 D램의 데이터 유지를 위한 '리프레시(Refresh)' 주기를 최적화함으로써, 대기시 전력 소모를 기존 제품에 비해 30% 감소시킬 수 있다. D램은 휘발성 메모리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읽고 쓸 때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유지하는 대기시에도 전력이 소모된다.

또한 데이터를 읽고 쓰는 구동시에도 기존 제품 대비 전류량을 3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어 점차 다기능화, 고성능화되고 있는 모바일 기기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저전력 소자 개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이 뿐만 아니라 크기도 기존 제품 대비 20% 이상 얇은 박막형 솔류션 제품이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2Gb 급의 고용량 제품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번에 개발한 1Gb D램을 통해 초소형 메모리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조사 기존 패키지 사용이 가능해 추가도 패키지를 개발할 필요가 없어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원가절감 효과를 얻는 것은 물론 대용량, 고속 메모리에 대한 시장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전희 냉장고’ 나온다

삼성전자, 휴대폰 연계 신개념...2009년 생산

‘이전희 냉장고’가 나온다. ‘이전희 냉장고’는 RFID(전자태그·무선인식기술)와 무선인터넷, 휴대폰 기술을 접목시킨 신 개념 냉장고다.

삼성전자 소프트웨어팀은 최근 이전희 삼성 그룹 회장으로부터 휴대폰과 연계한 신 개념 냉장고를 개발하라는 제안을 받고 개발에 착수했다. 이 냉장고는 오는 2009년 선보일 전망이다.

삼성전자 측은 “냉장고에 RFID 기술을 적용해 냉장고 내용물의 정보를 전산처리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기능을 내장시킨 새로운 개념의 냉장고를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이 냉장고는 식품의 유통기한이 지났을 경우 자동으로 사용자의 휴대폰으로 이 같은 내용을

알려주는 등 냉장고와 무선 통신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냉장고다. 또 냉장고 속의 음식물 정보를 취합해 냉장고 속에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요리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냉장고에 들어가는 식품 하나하나에 RFID 기기가 접목되고 관련 네트워크 기술이 보완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제 상용화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RFID 냉장고는 사실 유비쿼터스 가전 개념이 나오면서 이미 가능성이 언급된 내용”이라며 “RFID 기술은 현재 냉장고 외에 생활로봇 등 다른 가전에도 다양하게 접목이 시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기기자 itee@kwangju.co.kr

노트북PC용 연료전지

수명 한달짜리 나왔다

삼성전자는 삼성SDI, 삼성종합기술원과 함께 세계 최초로 노트북PC용 1200Wh(와트어워)급 대용량 연료전지를 개발하고 노트북 ‘센스 Q35’에 장착했다고 27일 밝혔다.

새로 개발한 연료전지의 용량은 도킹 타입의 대형 연료 카트리지가(약 1L)로, 주 5회 하루 8시간 사용하면 다고 가정했을 때 노트북 PC를 약 한 달 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DMFC : Direct Methanol Fuel Cell)’ 방식을 활용한 이 연료전지는 최대 20W의 출력이 가능하고 특히 에너지 밀도가 650Wh/L에 달해 경쟁사의 4배 수준에 달한다고 삼성전자는 강조했다.

/연합뉴스